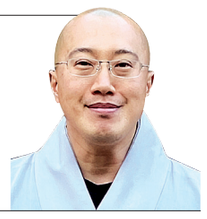
현불 논단

바른 교육이 중요하다



법장 스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동안거 해제 후 종단 교육 확대
출가자 · 불교신도 감소 상황서
가장 중요한 기틀은 불교 교육

부처님, 계 · 정 · 혜 삼학 강조
삼학 중 계학은 불교인의 근원

출가자라도 감정대로 방화하거나
사리 사욕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불교교육 방향 · 역할에 책임느껴

동안거가 해제한 뒤 불교계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새롭게 일정이 시작되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새로 출가한 행자들의 수계교육과 5급 승가고시를 시행하여 사미와 사미니를 배출하였고, 전통 승가대학(강원)과 율학승가대학원 등에서도 신입 입방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비구, 비구니 수계교육과 4급 승가고시가 시행되어 새롭게 출가자를 배출할 것이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불교 내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점차 출가자와 불교신도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 불교 내의 교육은 어떤 포교방법보다도 중요한 기틀이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많은 이들이 불교가 교육과는 무관한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행만을 하고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선시대의 폐불이나 탄압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생겨난 폐쇄적이고 어두운 불교의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남아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에서부터 철저히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 모두와 함께 깨달음으로 향해가는 종교이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전도선언과 같이 누구보다도 그 시대를 아우르는 언어와 표현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치와 문장을 갖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교를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관문과도 같아 그것을 통과하면 하늘도 나르고 미래도 내다보는 초인적 능력을 갖게 되고, 수행을 통해 영원불변의 자신을 발견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무속적인 불교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한다는 〈자설경(udāna)〉을 보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인과)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무상, 고, 무아' 를 설하신다. 이처럼 불교는 우리의 삶과 모든 현상을 여실하게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닌 보다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 참된 삶을 사는 종교인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불교인이 닦아야 할 수행으로 '삼학(계, 정, 혜)' 을 말씀하셨다. 삼학은 모든 불교인이 반드시 익히고 불교적 삶의 토대로 삼아야할 수행과 교육의 기본이다. 나쁜 일을 멀리하고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선한 일을 하며, 불교인다운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들과 함께 깨달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삼학의 가르침이다. 특히 삼학 중 계학은 불교인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계율을 지닌다는 것은 바로 불교인이 되는 것이기에 불교에 입문을 하면 곧바로 익혀야 하는 것이 불교인의 자세인 계율이다. 그러나 최근의 불교는 마음과 수행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계율과 교육을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불교인이 불교적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경전에서도 불교는 내부의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듯이, 불교인에게 바른 불교를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불교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지는 무명과도 같다. 출가하였으면서도 세속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감정대로 사찰에 불을 지르거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며 깊은 참회심과 더불어 불교교육의 방향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보다 확고한 책임감을 느낀다.

社 說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한다

악화일로. 미얀마 사태를 두고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다. 40여 일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군과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60여 명이 군 ·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은 3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연대하고 군부의 폭력을 비판하며 미얀마 대사관에서 UN인권위원회 사무소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이는 미얀마 현지에도 알려져 미얀마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전국비구니회는 미얀마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여성개발원과 샤카디타코리아와 공동으로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성명서' 를 발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3월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에 동참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한국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역시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의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에게는 낯설지 않다. 1980년대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확인되지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시대적 요구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얀마 군부도 이제라도 총을 거두고 참회로서 민주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

선학원, 분원 향한 '갑질' 멈춰라

재단법인 선학원의 전횡이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 이사장' 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았던 법진 스님의 후임으로 성운 스님이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분원장들의 고충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분담금 표적인상' 논란이다. 2019년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을 제기한 분원들에 대해 분담금을 25~100% 인상했다고 한다.

특히 (재)선학원측이 분담금 인상 분원을 '채권자' 로 지칭하고 인상 이유를 '소송비용' 이라고 설명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법진 스님의 이사장 자격을 문제 삼은데 대한 '재갈물리기식' 조치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재)선학원은 애초 소송이 시작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 일제강점기 왜색불교 청산과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서는 등 청정승풍의 상징이었던 선학원 이사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사회는 이를 묵인했다. 분원 스님들이 나선 것은 선학원 정체성을 흔드는 '성추행 이사장' 에 대한 우려이자 선학원을 향한 애정의 발로임에도, (재)선학원은 분담금 인상으로 그에 답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재)선학원에 대해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의 공개, 재정 투명성과 분담금 사용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100년 역사로 이어진 선학원의 정체성과 그 본질을 되짚어 봐야 한다. (재)선학원은 분원이 있기에 존재함을 잊어선 안된다. (재)선학원은 이제 창건주 · 분원장을 향한 '갑질' 을 멈추고, 누구를 위한 재단법인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마지막'이 준 깨달음

전국비구니회CPE센터를 개원하고 드디어 CPE 봄학기 기본과정을 들어갔다.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하여 비구니회 교육부 등 많은 스님들의 도움으로 첫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님들의 CASE STUDY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 스님께서 호스피스 환자를 만나고 온 사례를 가져오셨는데, 사례 속의 환자는 자신의 임종을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었다. 나는 교육생들에게 "아무리 임종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도 모든 호스피스 환자가 자신의 임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을 하던 중 5년 전, 정말 당황스러웠던 환자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다.

호스피스병원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임종을 앞둔 30대 젊은 여성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성격이 좀 예민하고 특히 너무 젊은 나이의 말기암 환자여서 본인의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걱정스러움을 안고 환자를 찾아 인사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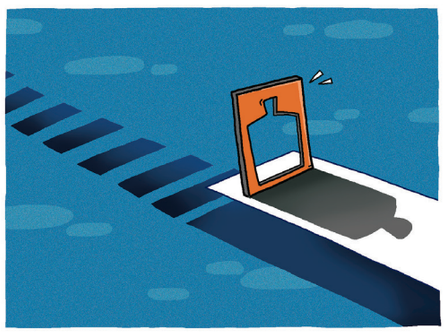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환자의 호기심어린 눈빛에 다소 안도감을 느끼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우선 나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좀 방심했던 것 같다. 무슨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갑자기 환자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환자를 보며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 했다.

그 후 정말 병원의 지도법사 소임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자괴감에 시달리며 며칠을 보내야 했다. 환자는 며칠 후 이생의 짧은 삶을 마감하였다. 나 역시 고통의 감정에 허우적거리다 결국 환자와는 화해를 하지 못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수치스러움을 직면하며 수퍼바이져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였고 수퍼비젼을 청했다. 수퍼바이져는 "스님, 우리 모두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스님은 그 환자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하고 질문했다. 나는 순간 수치스러움과 공포와 자괴감 등 나를 감싸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의 옷을 벗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환자가 '마지막' 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나는 그 환자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받아들임의 속도에 맞춘 단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